

FIP-2012-0001 (통권 제191호, 2012. 05. 16)

600대 기업 투자실적 및 계획

ISSUE
PAPER

조사 개요

1. 조사대상 : 2010년 말 기준 매출액순 600대 기업(외부감사 대상 비금융권 기업)
2. 조사기간 : 2012.1.16~2012.3.9
3. 조사방법 : 설문지 및 조사원 구술조사 병행
4. 조사내용 : 2011년 투자실적 및 2012년 투자계획, 투자 결정요인 및 정책과제 등
5. 유효표본 : 436개(회신율 72.7%)

Contents

< 요약 >

I. 2012년 투자 계획	1
1. 투자 전망(총괄)	1
2. 업종별 투자 전망	1
3. 자금 조달 계획	3
II. 2011년 투자 실적	4
III. 투자 결정요인 및 투자 활성화 정책과제	6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경제정책팀 송호석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TEL : 02-6336-0641 FAX : 02-6234-5383 E-mail : hoza17@fki.or.kr

I. 2012년 투자 계획

1. 투자 전망(총괄)

- 올해 600대 기업의 투자계획은 전년 대비 12.1% 증가한 140.8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
- 부문별로 시설투자는 10.9% 증가한 112조 7,496억 원, R&D 투자는 16.9% 증가한 28조 223억 원에 달할 전망
- 특히 R&D투자는 16.9% 증가하여 전체 투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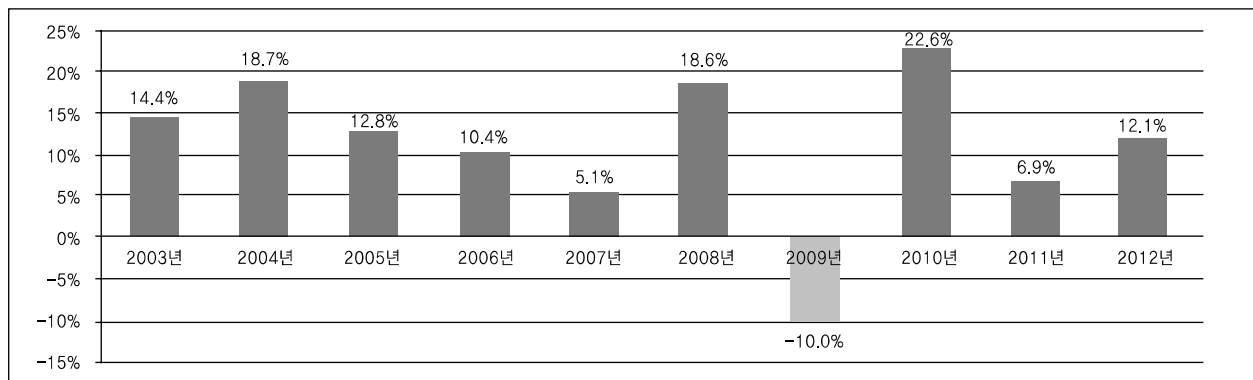
< 600대 기업 투자 실적 및 계획 >

(단위 : 억 원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(계획)
시설 투자	944,625	1,016,518 (7.6%)	1,127,496 (10.9%)
R&D 투자	230,408	239,699 (4.0%)	280,223 (16.9%)
투자 총액	1,175,033	1,256,217 (6.9%)	1,407,719 (12.1%)

주 : ()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

< 600대 기업 투자 증가율 추이 >



2. 업종별 투자 전망

- 제조업은 전자부품·장비, 자동차·부품, 화학, 철강·비철금속 등의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11.3% 증가 전망
- 전자부품·장비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와 OLED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8.6% 증가

- 자동차·부품은 친환경·고효율 자동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 및 공장 신증설, 한미 FTA 효과 기대 등으로 전년 대비 14.9% 증가
- 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, 태양광소재, 합성섬유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17.2% 증가
- 철강·비철금속은 생산설비 확충 등으로 전년 대비 7.8% 증가

< 제조업 투자 증가율 추이 >

(단위 : %)

업 종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 (계획)	구성비 ('12년)
제조업 전체	30.0	△18.5	34.6	3.6	11.3	66.3
식음료·담배	15.7	△8.6	21.0	1.2	31.6	1.3
섬유·의복·신발	26.2	78.9	△18.1	65.5	△21.9	0.1
목재·가구	△17.9	△1.4	658.8	45.4	△15.1	0.1
종이·펄프·인쇄	52.2	△12.5	67.9	△14.1	14.3	0.2
석유정제	29.1	46.7	△1.8	△32.4	1.0	1.5
화학	12.8	△1.1	72.8	58.1	17.2	7.5
의약품	6.0	△0.2	△4.2	4.4	26.6	0.4
고무·플라스틱	0.2	△34.0	63.6	26.4	14.5	0.8
시멘트	△29.8	48.6	2.3	55.0	△23.1	0.4
철강·비철금속	51.7	7.3	△12.8	△11.4	7.8	6.4
전기장비·기계·조립금속	34.7	13.6	21.2	18.0	8.9	1.5
전자부품·장비	26.4	△42.3	70.7	△1.1	8.6	36.8
의료·정밀·광학기기	-	18.8	41.0	△25.1	100.5	0.0
자동차·부품	1.5	△3.7	35.6	13.4	14.9	7.2
조선·기타 운송장비	87.5	△40.8	△39.8	16.5	55.0	2.3

주 : 구성비는 전체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 자료 : 전경련 투자 조사 각년도

- 비제조업은 전력·가스·수도, 통신·IT서비스, 건설, 방송·영화·지식서비스 등의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13.6% 증가 전망
 - 전력·가스·수도는 노후화된 발전·변전설비 교체와 천연가스, 도시가스 사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8.8% 증가
 - 통신·IT서비스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과 스마트기술 개발을 위한 R&D투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5.3% 증가

- 건설은 신공법 개발 및 사업다각화 등으로 전년 대비 23.1% 증가, 방송·영화·지식서비스는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전년 대비 31.1% 증가

< 비제조업 투자 증가율 추이 >

(단위 : %)

업 종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 (계획)	구성비 ('12년)
비제조업 전체	5.5	5.5	4.8	14.3	13.6	33.7
전력·가스·수도	△0.3	29.8	△0.3	△1.6	28.8	13.7
건설업	8.9	△47.6	△9.4	36.9	23.1	2.3
도소매업	16.0	△7.0	23.6	22.8	4.4	4.5
운송·창고업	10.3	△1.6	5.4	24.7	△11.2	4.0
숙박·음식·레저	20.4	△1.4	28.5	△3.7	5.3	0.4
방송·영화·지식서비스	△40.9	0.8	12.7	56.4	31.1	2.1
통신·IT서비스	3.6	△9.0	5.3	21.3	5.3	6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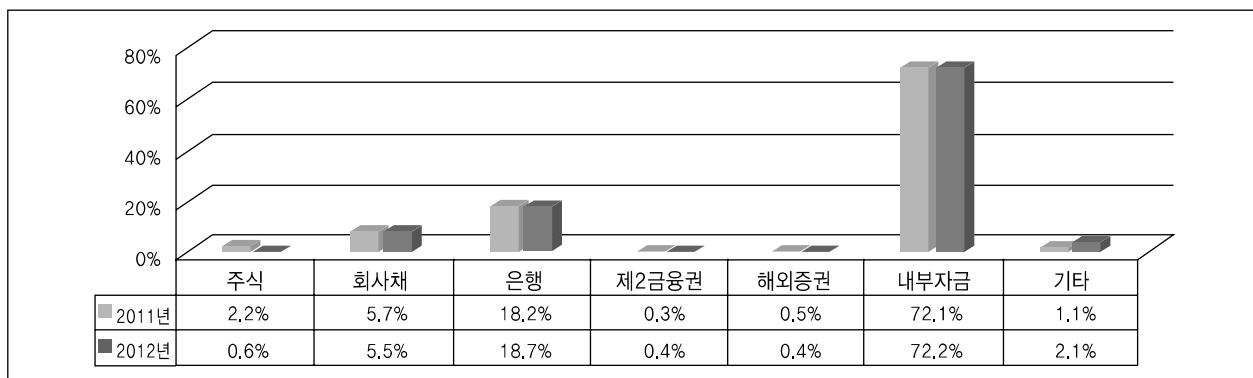
주 : 구성비는 전체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

자료 : 전경련 투자 조사 각 연도

3. 자금 조달 계획

- 투자자금 조달은 내부자금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(72.2%), 은행 차입 비중이 증가하고 주식 발행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내부자금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72.2%로 높은 수준을 기록, 이는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안정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
- 은행 차입 비중은 18.7%로 전년 대비 0.5%p 증가하고, 주식 발행 비중은 0.6%로 전년 대비 1.6%p 감소할 전망

< 투자자금 조달 비중 >



II. 2011년 투자 실적

□ 600대 기업의 '11년 투자는 전년 대비 6.9% 증가한 125.6조 원

- 제조업은 '10년 대규모 투자 증가(34.6%)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.6% 증가한 반면, 비제조업은 14.3%의 높은 투자 증가율을 기록

< 제조업·비제조업 투자 추이 >

(단위 : %)

구 분		제 조 업			비제조업	전체
		경공업	중화학	소계		
2012년 (계획)	투자액(억 원)	23,215	910,586	933,801	473,918	1,407,719
	증가율	22.3	11.0	11.3	13.6	12.1
	구 성 비	1.6	64.7	66.3	33.7	100
2011년	투자액(억 원)	18,984	820,145	839,129	417,088	1,256,217
	증가율	4.6	3.6	3.6	14.3	6.9
	구 성 비	1.5	65.3	66.8	33.2	100
2010년 증가율		24.6	35.0	34.6	4.8	22.6
2009년 증가율		△5.3	△18.9	△18.5	5.5	△10.0

주 : 증가율은 전년 대비, 구성비는 총 투자액 대비

자료 : 전경련 투자 조사 각 연도

- 제조업은 전자부품·장비, 철강·비철금속, 석유정제 등의 투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화학, 자동차·부품 등의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3.6% 증가
 - 전자부품·장비는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반도체,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로 전년 대비 1.1% 감소
 - 철강·비철금속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산업수요 둔화와 원료값 상승,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.4% 감소
 - 석유정제는 고도화설비 투자 마무리에 따라 전년 대비 32.4% 감소
 - 반면, 화학과 자동차·부품은 생산설비 확충과 신성장사업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에 각각 전년 대비 58.1%, 13.4% 증가

- 비제조업은 도소매업, 운송·창고업, 건설업, 방송·영화·지식서비스, 통신·IT서비스 등의 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14.3% 증가
- 운송·창고업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으로 전년 대비 24.7% 증가, 도소매업은 물류시설, 신규점포 확충 등으로 전년 대비 22.8% 증가

< 2011년 업종별 투자 실적 >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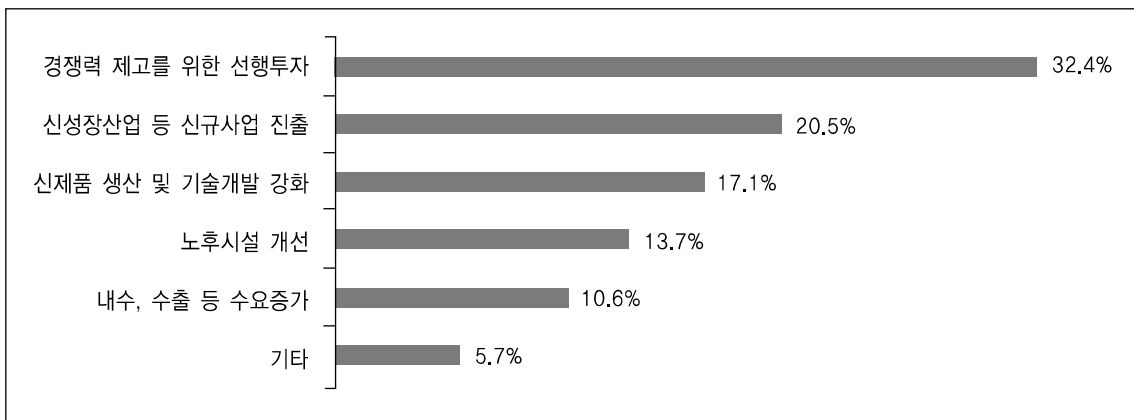
업종	증가율	업종	증가율
제조업	3.6	비제조업	14.3
식음료·담배	1.2	전력·가스·수도	△1.6
섬유·의복·신발	65.5	건설업	36.9
목재·가구	45.4	도소매업	22.8
종이·펄프·인쇄	△14.1	운송·창고업	24.7
석유정제	△32.4	숙박·음식·레저	△3.7
화학	58.1	방송·영화·지식서비스	56.4
의약품	4.4	통신·IT서비스	21.3
고무·플라스틱	26.4	X	
시멘트	55.0		
철강·비철금속	△11.4		
전기장비·기계·조립금속	18.0		
전자부품·장비	△1.1		
의료·정밀·광학기기	△25.1		
자동차·부품	13.4		
조선·기타 운송장비	16.5		

주 :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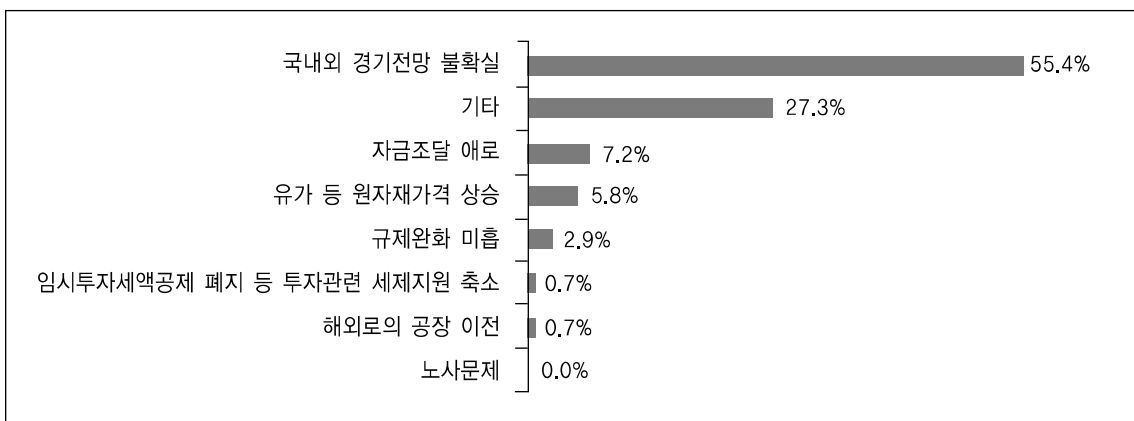
Ⅲ. 투자 결정요인 및 투자 활성화 정책과제

- 2012년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(260개)이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(130개)의 2배로 나타남
 -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의 확대 이유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행투자(32.4%), 신성장산업 등 신규사업 진출(20.5%) 등으로 조사됨
 - 투자 축소를 계획한 기업은 국내외 경기전망 불확실(55.4%), 기타(27.3%), 자금조달 애로(7.2%) 등을 축소 이유로 밝힘
 - 기타(27.3%) 의견으로는 기존투자 완료, 기업 결합 및 합병 등

< 투자 확대 이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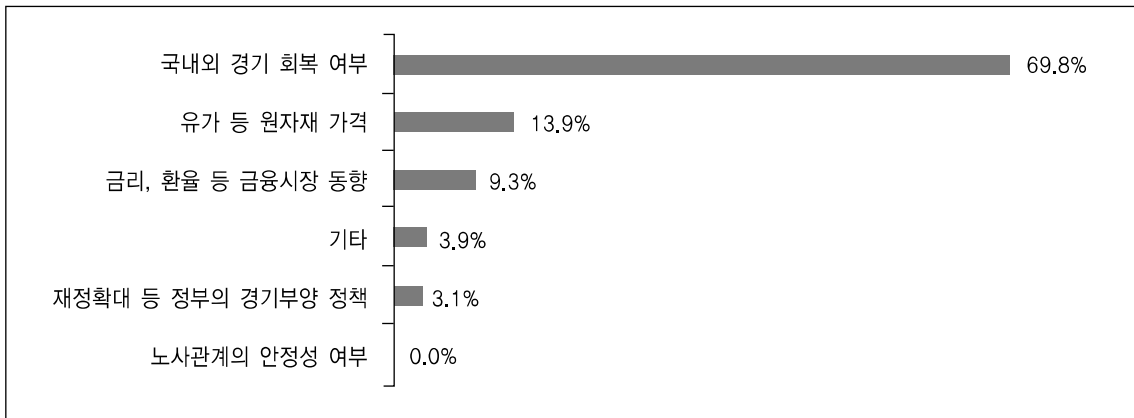


< 투자 축소 이유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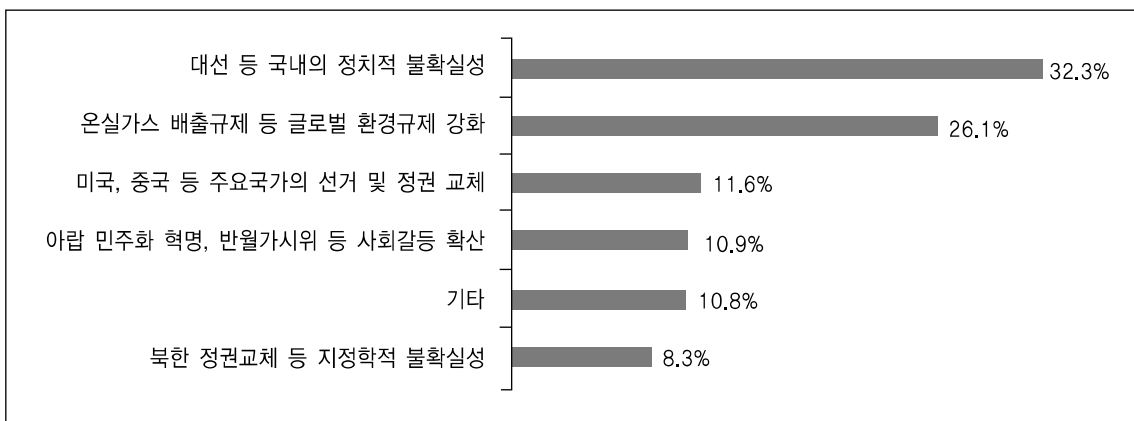
- 올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제변수로 국내외 경기 회복 여부(69.8%), 유가 등 원자재가격(13.9%) 등을 지목

<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제변수>



□ 올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비경제변수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(32.3%),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(26.1%) 등을 지목

<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비경제변수>



□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육성(25.5%), 자금조달 지원(20.0%), 감세기조 유지 등 세제지원(18.0%)이 필요하다고 응답

<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>

